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212.736.8500(EXT 355, 384)

www.stfranciskc.org/email-stfranciskc.org@gmail.com  
사무실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목)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 청년미사 : 두 번째 토요일 오후 6시 아래 성당  
청년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돌아온 탕자,  
Sieger Köder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ofmichael@hanmail.net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지도수녀 김도경 헬레스틴(투스 쾨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ohanleosb@gmail.com

한국학교 stfranciskc@gmail.com

제1독서: 탈출 32,7-11,13-14

제2독서: 1티모 1,12-17

복음: 루카 15,1-32(15,1-10)

가톨릭 성가 | 입당: 518

봉헌: 56

성체: 151

파견: 47

### ◆ 화답송



(후렴) 일 어 나 아 버 지 께 가 리 라.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이산가족 찾기”

전쟁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해준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어느덧 30년이 되어 유네스코 등록을 추진한다. 서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물어볼 겨를도 없이 그저 부둥켜안은 채 한참을 울었다. 방송을 보던 우리도 울었다. 어떤 대본도 억지 연기도 없이 ‘소중한 사람들의 만남’ 하나만으로.

오늘 복음에 사용된 양과 은전, 그리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소개한다.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에게는 참으로 불쾌하지만 소중히 다룰만한 가치가 없는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하느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필요하면 좋아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살아남으려면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팽배해지는 세상이다. 그러다보니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나 자신에 대한 소중함도 잊을 때가 있는 것 같다. 하느님께서는 “어미가 제 젖 먹이를 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신다. 잊지 않을 만큼 소중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느님 때문이란단다.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쓸모가 있게 살았는가?”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우리는 하느님께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이다.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 만남을 기다리고 계신다. 여의도 광장에 나와 피켓을 든 모습처럼, 방송극 한 귀퉁이에 붙어있는 이름을 애타게 찾던 그 모습으로. 이제 이산가족 상봉의 그 감동에 하느님과 내가 주인공이 될 차례가 되었다. ♠

“성경 맛들이기 - 역대기계 역사서 2-2”

#### 4. 저작 목적

귀환 이후의 유다인들은 ‘이스라엘의 재건’이라는 난제를 안고 있었고, 이미 유다인들의 삶 안에 스며들기 시작한 바빌론-페르시아의 문화와 헬레니즘의 침입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훼 종교’의 전통을 이어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했다.

역대기계 역사서는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희망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경신례’와 이를 통한 ‘신정(하느님의 통치)’에 두고 있었다. 즉 예루살렘과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한 개혁만이 이스라엘이 살길이며, 이를 추종하는 제의 공동체만이 참 이스라엘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주제는 귀환 이후의 예언서들 안에서도 부각되는 주제이지만 특별히 역대기계 역사서는 ‘역사’라는 모티프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통찰하고, 여러 현안들을 풀어 가고자 한다.

이렇게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를 강조하다보니, 성전에 계약 궤를 모시고 성전 건축을 계획하며 성전 예배를 체계화시킨 다윗 가문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대기계 역사서보다 다윗 가문을 더 부각시킨 책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 5. 신학적 주제들

##### 1) 사제적 관점의 강조

역대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사제적 관점’이다. 곧 역대기는 이스라엘을 ‘사제들의 왕국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 전례 안에 하느님을 공경하는 ‘제의 공동체’로서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역대기 역사는 이스라엘의 축제들에 관심을 보이는데 파스카(2역대 30장 ; 35장)와 초막절(2역대 7,9-10), 사제들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성전 성가대(1역대 6,16-32 ; 15,16-24 ; 16,37-42 ; 2역대 5,12) 등에 대하여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 2) 다윗에 대한 재해석

역대기는 다윗의 통치를 이상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이전 통치자들을 간단히 개관한 반면(1역대 1-9장), 무려 19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1역대 11-29장)을 다윗에 대한 보도에 할애하는 것을 보아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별히 역대기는 다윗을 정치가로서의 면모가 아니라 사제적인 관점에서 이상화시키고 있다. 역대기에서 다윗의 군사 . 정치적 치적을 찬양하고, 다윗 가문과의 계약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해석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은 그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조직한 인물이라는 평가에 있다(1역대 13-16장 ; 1역대 28,19참조). 이러한 차원에서 다윗의 위상에 손상이 갈만한 전승들은 모두 삭제되고 있으며, 오히려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성전에 대한 꿈에 사로잡혀 있었던 특별한 인물이었다(1역대 28-29장). 이를 통해 저자는 참 이스라엘이 결국 다윗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오시게 될 메시아의 원형은 다윗이라는 정식을 성립하고 있다.

##### 3) 예루살렘 성전과 전례

역대기가 반영하고 있는 사제적 관점은 예루살렘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진다. 예루살렘은 하느님 친히 당신이 머무실 장소로 선택하신 곳(2역대 6,6)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베텔과 단에 성소를 마련하여 거기에서 예식을 지낸 것과 무관하지 않다(1열왕 12,29 참조). 이러한 신학적 정리는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를 강조함으로써 신권과 통치력을 연합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 4) 인과응보 사상

역대기가 역사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은 ‘인과응보적 원리’다.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했던 남왕국은 복을 받아 번영과 장기 통치를 허락받는다.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가 40년간 지속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원칙에 상응한다. 그 반대의 예는 므나쎄이다(2역대 33,1-13). 그는 처음부터 종교혼합정책을 표방한 인물이어서 역대기계의 눈에서 보면 악한 왕이었지만, 무려 55년간을 집권한다. 역대기에 의하면 이는, 그가 바빌론에 끌려갔을 때 회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반면 요시아는 그토록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충실하였지만 젊은 나이에 죽고 만다. 이에 대하여 역대기는 그가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이집트 군사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무모하게 전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2역대 35,20-27).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역대기계 역사서는 신명기계 역사서보다 더욱 강하게 인과응보 사상을 심화하여 적용시켰음을 알 수 있다.

>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친교실 = 다미아노 홀 / 성당 밖 좌측 20m)

> **꾸리아** : 10/6 야외행사(메리놀 수도원) 관계로  
오늘 없습니다.

> **양업회** : 오늘 11시, 2층 컨퍼런스룸

> **경애원 후원금 접수** : 오늘, 다미아노홀 입구

◆ **공 지 사 항**

> **9월 22일 미사 안내**

9월 20일(금) 전례를 경축 이동하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미사로 봉헌합니다.

> **9월 확대회의**

대상 : 사목위원, 단체장  
일시 : 9월 29일(주일) 11시, 교육관 3층 5호실

> **본당 달력 광고 안내** 신청비: \$120

2020년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 천주교회 달력이 새로이 제작됩니다. 달력에 사업체 광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9월 중에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추계 꽃동네 성령 대피정**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느헤 8,10)  
일시 : 9월28일(토) 9am ~ 29(주일) 5:00pm  
강사 : 신용문 야고보 수사신부(꽃동네 형제회)  
장소 : 펄팍, NJ 가톨릭센터  
120 West Palisades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접수비 : \$40(2일간) 접수전화 : 201.230.5643/201.956.0299  
이메일 : njkkot@hotmail.com

**아들에게** (문정희·시인, 1947-)

아들아  
너와 나 사이에는  
신이 한 분 살고 계시나보다

왜 나는 너를 부를 때마다 이토록 간절해지는 것이며  
네 뒷모습에 대고 언제나 기도를 하는 것일까?

네가 어렸을 땐  
우리 사이에 다만 아주 조그맣고 어리신 신이 계셔서  
사랑 한 알에도 우주가 녹아들곤 했는데

이제 쳐다보기만 해도 훌쩍 큰 키의 젊은 사랑아

너와 나 사이에는  
무슨 신이 한 분 살고 계셔서  
이렇게 긴 강물이 끝도 없이 흐를까?

> **청년 찬양팀 기타 연주자 모집**

청년 찬양팀 야훼이레에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청년미사에 함께 할 기타 연주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연습시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2-3시/두 번째 토요일 3-5시  
청년미사 : 매월 두 번째 토요일 6시  
연락처 : 이재인 베로니카 / 카톡 : thegreatjaney

> **청년 성서모임, 참가자 및 봉사자 모집**

청년성서모임은 3~6명의 그룹원과 봉사자로 구성된 소그룹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한 나눔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청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봉사자(이수현 소화데레사) : 646.251.4413  
부대표 봉사자(안수관 토마스) : 215.470.8113

> **청년 성가대 단원 및 반주자 모집**

1. 청년성가대 '처음처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청년성가대는 매달 4번째 주일 미사를 담당하며 매주 주일 1시 반에 연습합니다.  
2.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 연습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음악 전공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박성현사라(카톡: spark31)에게 연락주세요.

> **주일학교 ♥ 한국학교 교사 모집**

주일학교 문의 : 김가연 크리스티나(347.882.2244)  
한국학교 문의 : 김민정 세라피나(917.887.5040)

> **주일학교 새 학기 등록**

대상 : 만4세 ~ 12학년  
신청 : \$40(마감일 : 오늘) / 다미아노홀 학부모회  
학기 시작 : 오늘 미사 후 클레어 룸

> **한국학교 새 학기 등록**

대상 : 만4세 이상  
신청 마감일 : 9월 22일  
등록 및 납부 : 친교실, 학부모회  
학기 시작 : 9월 22일

> **2020년 부활절 세레 및 견진 교리반 모집**

기간 : 2019년 9월 22일 ~ 2020년 4월 5일(매 주일)  
세레 및 견진일 : 2020년 4월 11일(토)  
일시 및 장소 : 매 주일 오전 10:50~12:10/교육관 5호실  
문의 : 김 첼레스틴 수녀 347.834.5784

> **KCB 가톨릭방송 기금마련 걷기 대회**

- 걸을 만큼 걷는다 -  
일시 : 2019년 10월 6일(주일) 오후 2시  
장소 : 레오니아 오버팩 공원  
문의 : 718.888.9130 / kcbnyorg@gmail.com  
행사위원장 : 조민현, 남해근, 홍성계 신부

◆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 이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퍼시도록 빌어주소서.
-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 당신들은 이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사오니
-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를 많이 나게 하시고
-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자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미 사 봉 헌

<p>● <b>연미사</b></p> <p>임판례 이태묘, 이영우 박난성 요셉프란치스코 전복저 아가다</p>	<p>복헌</p> <p>윤 루시아, 조 미카엘 이상홍 스테파노 양미숙 마리아 윤동진 프란치스코</p>
<p>● <b>생미사</b></p> <p>김애희 테클라 양복연 사비나, 임영애 스텔라 노혜영 리오바, 김기레 레지나 이로잔 캐더린 김창욱 아오스딩 김영숙 카타리나, 김순한 루시아 김옥지 아가다, 전마지 마가렛 이재호클레멘트, 이진자세실리아 김동희 헬레나, 정창동 폴리나 이정주데레사, 이중환T.아퀴나스</p>	<p>익명</p> <p>강호영 안드레아 강호영 안드레아 이 안나 김수경 로사</p>

◆ 전례봉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9월 15일	권순재 요한레오나르도	최도운 요셉	김현민 마리아	이미진 그레이스	원준성 프란치스코	강재원 황유경	오윤서 황예슬	양미숙 김승애 이지연 이은경 유정옥 이규완 민재인 김영희
9월 22일	양정윤 젤마	조원준 바오로	박정은 마리아	신혜정 소화데레사	박시현 마리아	홍원표 손유경	김진섭 안수관	홍민철 백이백 이정현 이지훈 민완준 민택미 조리디아 장혜윤

그리운. miss KOREA  
10W 32nd Street, 1,2,3 FL, NY  
212-594-4963

**원즈**  
23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더큰집**  
32W. 32nd Street, New York  
212-216-9487

**HELL'S CHICKEN**  
641 10TH AVE (45/46 ST), NY  
212-757-1120

Shin & Associates, P.C. 신중석 변호사 사무실  
**백승민 변호사**  
Sung-Min Baik, ESQ.  
212-594-4663  
16W. 32nd Street, Suite 502 New York  
www.lawyer-shin.com  
이민법, 상법, 교통사고, 소송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s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  
**노세웅**  
Licensed Agent-한국어 서비스  
생명보험, 학자금 마련, 건강보험, 은퇴자금, Annuity, Long Term Care  
201-667-7338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9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12pm-9pm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 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한방병원  
290 MADISON AVE FL6 NY,  
NY10017 (b/t 40&41st)  
212.203.0072 (문자가능)  
예약/문의카톡ID: nycacu

항공 및 관광 전문 **OLYMPIA**  
**올림피아여행사**  
박로사  
1270 Broadway 32, 33가 사이 #603  
www.olympiaturusa.com  
☎ 212-695-6699

광고주를 찾습니다  


- ◆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아래성당 고해소
- ◆ 혼인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 ◆ 유아세례      사무실 : 347-834-5784